



칭찬하고 응원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생활의 활력소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합니다. <편집자 주>

푸른신문에서는 주민여러분의 따뜻한 칭찬과 응원, 미담사례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푸른신문 '칭찬하고 응원해요'란에 들어갈 가족 또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힘이 되는 메시지와 사진을 함께 보내 주시면 예쁘게 편집해서 실어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 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하고 응원해요'는 계속됩니다.



*접수는 이메일 pr5726000@naver.com로 보내주세요.

푸른방송 고객상담팀 박언미 과장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합니다. 바로 박언미 과장입니다.

업무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물어보면 자기 일 같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름휴가를 못 다녀온 것 같은데 무더위 피해서 가족들과 시원한 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언미 과장~ 화이팅!!!

<칭찬하는 사람:김창열>



진심을 다해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상호씨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구직활동에 지치고 힘들어하던 저를 잘 이끌어주고 응원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제 자신조차한테도 의문을 갖으며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저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격려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으로 꼭 막혀있던 저의 시야를 넓혀 주었고 덕분에 생각도 많이 전환됐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상호씨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칭찬하는 사람:김복란>



푸른방송과 푸른신문이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달서구 달성군의 중소기업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무료**로 연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기획기사를 통해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니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홍보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푸른방송 551-2000, 푸른신문 572-6000